

단계 겐조(丹下健三)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전통성 해석에 관한 연구

권제중
대구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A Study on the Analysis of Traditionality in the Architecture of Kenzo Tange

Je-Joong Kwon
Professor,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Daegu University

요 약 일본의 초기 현대건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단계 겐조는 1950년대부터 건축의 현실적 창작 과정에서 전통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고, 일본건축의 전통성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현대건축에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단계는 전통적인 형태 그대로를 보존하는 방식의 기존 전통론으로는 더 이상 일본의 전통성을 국제적인 것으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자신의 '신전통'을 통해 전통을 끊임없는 혁신에 의해서만 지속되는 것, 창의적인 활동을 자극하는 촉매제로서 결과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주장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계가 자신의 건축에서 주장했던 '신전통'에 대해 그 개념과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주제어 : 단계 겐조, 일본건축, 전통성, 신전통, 현대건축

Abstract Kenzo Tange who had successfully led Japan's early modern architecture has been interested in how to express tradition in the process of realistic creation of architecture since the 1950s. He tried to express the tradition of Japanese architecture in modern architecture in his own way. Tange believed that existing theory of tradition preserving traditional forms would no longer make Japan's tradition international. Therefore, he insisted that through his own 'new tradition', the tradition is maintained only by constant innovation, and that it does not leave traces in the results as a catalyst to stimulate creative activities.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new tradition' which Tange has claimed in his architecture.

Key Words : Kenzo Tange, Japanese architecture, Traditionality, New Tradition, Modern Architecture

1. 서론

근대 이후, 많은 건축가들이 자신의 건축작품을 전통 위에 기초시키고, 전통 속에 스며들게 함으로써 모더니즘 건축의 획일적 경향에 빠져 있던 기존 건축계에 대한 변

화를 추구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50년대 일본의 건축계에서도 문화적, 국가적 정체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전통'이 열띤 논쟁을 벌였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였다. 특히, 일본은 전쟁에서의 패배와 그에 따른 미군정으로 인한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Daegu University Research Grant, 20150120

*Corresponding Author : Je-Joong Kwon(kwonjejoong@daegu.ac.kr)

Received April 4, 2019

Revised May 15, 2019

Accepted June 20, 2019

Published June 28, 2019

일본 문화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전통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 일본인들에게 대중적이었던 전통적 건축형태인 '제관양식(帝冠樣式)'은 1950년대의 민주화와 국제화의 분위기 속에서 불쾌한 민족주의적, 군국주의적인 함축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일본의 건축가들은 민족적, 문화적 뿌리를 반영하면서도 극단적 민족주의의 인상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중에서도 일본의 전통적인 재료, 용어 및 관계를 사용해 자신의 건축작품에 전통의 흔적을 보여줬던 단계 겐조(丹下健三)는 이러한 노력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단계의 건축은 전통건축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건축적 전통과 현대건축을 성공적으로 융합했다고 평가받는다. 측면에서 그의 전통성 추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일본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단계라는 현대 건축가의 전통과 현대 사이의 성공적인 조화가 우리에게도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연구의 목표는 단계의 건축작업에서 전통의 건축적 통합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단계에게 전통의 개념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와 단계의 건축에서 전통과 현대의 융합 지점을 찾는 것이 첫 번째이며, 그의 건축작업에서 재료, 어휘 및 관계적 측면에서 전통의 표시나 흔적을 찾는 것이 두 번째 목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 첫 번째로서 단계의 작업에서 전통의 적용이라는 문제의 복잡성을 측정하기 위해 단계에게 있어 전통의 개념과 그 개념상의 변화 및 단계가 최종적으로 주장한 '新전통'의 개념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단계가 전통과 현대의 두 짝을 어떻게 결합시켰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통의 개념과 일본에서의 전통

2.1 전통의 일반적 개념

전통은 과거가 현재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든 문화유산이며,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정신이다. 과거는 현재 속에서 예전의 경험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것에 한정된 단순한 매개에 의해 안정적인 형태로 살아남을 수도 있고, 과거의 요소에 새로운 요소를 덧붙임으로

써 역동적인 형태로 살아남기도 한다.

2.1.1 수동적·고정적 전통

동일 문화를 갖는 세대 간에 전달된 문화요소를 같은 상태로 유지, 보존하려는 전통의 수동적인 능력이 이 개념에 해당한다. 이런 전통은 과거를 과거로써 그 형태와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 복제적인 재생산을 강조한다. 이러한 개념을 갖는 전통은 계승된 것을 지키면서 보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복제적인 성격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2.1.2 능동적·역동적 전통

전통의 능동적 능력은 그 계승의 역사 속에서 해석에 따라 과거의 요소에 새로운 요소를 통합시키는 것이다. 전통은 매 순간 여러 상황 속에서 재창조된 새로운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단순하고 순수한 복제 속에서 다시 새로워진다는 것이다[1].

이 개념의 전통은 결국 통합이나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의미의 변화, 퇴화 혹은 단순화. 그리고 성숙화의 과정을 거치고, 상징적이거나 신화적인 과거의 가치를 새로운 전통에 통합시키려고 노력한다.

단계의 경우를 예로 들면, 단계는 자신이 개발한 새로운 조형형태에 치기(ちぎ)¹⁾나 토리(とりのい)²⁾와 같은 전통적인 형태를 통합시켜 과거의 형태가 전달하는 신비하고 상징적인 가치를 통해 근대의 빠른 변화, 압박감, 그리고 긴장 등에 은밀하게 저항하는 안정성이나 영속성을 불러 일으켰다.

2.2 일본의 건축적 전통

2.2.1 죠폰양식과 야오이양식

일본건축의 발전은 Fig. 1에서처럼 고대 죠폰시대(BC 5000-300년전)의 움집에서부터 시작해 야오이시대(BC 300-AD 300) 동안의 고상주거로 이어졌다.

일본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 두 시기 중, 죠폰시대의 양식은 선사시대 유목민의 수렵 생활과 관련되며, 일반 서민이나 농민들의 문화와 에너지의 표출로 상징되는 양식이다. 죠폰은 자연스럽고 원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거칠게 다루어지면서 수년을 사용하기 위해 단순하고 튼튼

1) 고대의 건축에서 지붕 위 양 끝에 X자형으로 교차시킨 길다란 목재(현재는 신사(神社)의 지붕에만 쓰임)

2) 신사(神社) 입구에 세운 기둥문

하게 만들어진 오브제, 물품들을 통해 미완성의 형태와 주제로 표현된다.

반면에 절제된 양식으로 평가되는 야오이시대의 양식은 정주형 노동자들과 관계되며, 장식이 없는 순수한 형태의 섬세하게 정제된 오브제의 통제된 기하학적 형태로 부터 부드러움, 규칙성, 명료함 등으로 표현된다. 야오이의 이러한 흐름은 귀족적인 상위계급 사회의 양식으로 발전했다.



Fig. 1. Architecture of Jomon(left) and Yayoi(right) period

2.2.2 기술적 진보와 미학 사상에 대한 개방

신도(神道)와 불교라는 두 종류의 종교에 의해 형성된 일본인들의 시각은 자연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발전과 예술적 발전을 거부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빠른 기술적 진보나 지나치게 혁신적인 예술적 새로움에 대해 일본인들은 기술적이고 예술적인 발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인간적이며, 지적이고, 물리적인 세계를 창조하려고 노력한다[2].

건축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건축가들 역시 일본의 전통 속에 생생히 유지되어 왔던 것을 동시대 서양의 미학적 사상들과 혼합시켰다. 일본의 건축가들과 예술가들은 고유의 전통과 서양의 기술을 자신들의 작업에 접목시켜 일본의 전통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국제적 미학 과도 매우 유사한 강력한 표현들을 철근콘크리트를 통해 수많은 건축물로 세웠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Robin Boyd는 “일본에서의 독특한 예술적 문제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일종의 섬나라 근성이다. 감성적인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동양도, 서양도 아닌 그사이 어딘가로 느낌으로써 자랑스러워하고 경외감을 느낀다.”라고 주장했다[3].

2.2.3 일본 건축계에서의 전통논쟁

1950년대로 접어들면서 일본의 문학계와 역사학계에서 처음 시작된 민족 자아의 고양은 사회 전반에서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이 불리일으켰다. 곧이어 자주적 자아인 민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게 되었고, 세계대전의 파시즘 시기에 나타났던 민족론에 대

한 재평가 움직임과 함께 건축에서도 ‘전통논쟁’을 유발하게 되었다.

일본 건축계의 ‘전통논쟁’은 카와조에 노보루(川添登)가 1956년에 잡지 ‘신건축(新建築)’에 발표한 ‘전통과 민중의 발견을 목표로’라는 글을 통해 시작되었는데, 곧이어 ‘건축문화(建築文化)’, ‘국제건축(國際建築)’ 등 주요 건축잡지들과 대중잡지, 신문 등에 많은 논문과 지상 토론이 실리게 되면서 건축잡지 사상 획기적인 토론이 진행되었다[4].

전통논쟁에는 건축의장에 근대적 기능과 신소재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포함하여 근대건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의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였으며 [5], 패전국 일본의 낮은 기술력과 경제적 수준에 맞지 않는 서양의 건축을 일본에 실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비판과 자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어서 당시의 일본에 어울리는 생산양식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기술론이 뒤따랐고, 건축가들 역시 일본의 생활양식에 알맞은 건축양식을 창조하려고 노력하였다. 일본 건축계의 이와 같은 경향은 건축가들에게 일본의 생활양식과 풍토, 기후조건, 문화적 형태를 건축에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으며, 디자인 언어라는 측면에서도 전통적인 수공예에서 영감을 얻어 거친 재료를 사용하도록 독려했다[4].

2.3 단계 겐조에겐 미친 전통의 영향

2.3.1 전통을 향한 단계 겐조의 사랑

단계에 따르면, 전통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을 인도한 사람은 도쿄대학의 교수이며, 학창 시절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키시다 히데토(岸田日出刀)였다[6]. 키시다 교수는 자신의 책 ‘과거의 구성(過去の構成)’에서 카츠라 별궁과 교토의 왕궁을 부각시켰는데, 후에 단계가 1960년에 ‘일본건축에서 카츠라, 전통 그리고 창조’, 1962년에 ‘이세, 일본건축의 원형’이라는 두 권의 저서를 출판함으로써 스승의 뒤를 이었다. 존경하는 스승에 의해 일깨워진 전통과의 강렬한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전통에 대한 열망은 이후의 작업에 영향을 미쳤으며, 전통의 흔적은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프로젝트, 특히 중동지역에서의 프로젝트에서도 나타난다[7].

2.3.2 쇼몬과 야오이의 영향

쇼몬양식과 야오이양식의 두 가지 전통은 단계의 많은 계획안, 그중에서도 특히 관공서 프로젝트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히로시마 평화공원(1956)부터 도쿄 도청사(1957)를 거쳐 카가와 현청사(1958) Fig. 2에 이르는 단계의 초기 건축은 세련되고 절제된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귀족적 문화인 야오이양식에서 영감을 얻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가느다란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절제된 야오이로부터 거칠고 역동적인 특징을 가지는 서민적 성격의 죠폰양식으로 조금씩 옮겨갔다.

죠폰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건축물인 쿠라요시 시청사(1957), 수미 기념관(1957), 소게츠 아트센터(1958) Fig. 3, 이마바리 시청사(1959), 쿠라시키 시청사(1960), 리코 대학 도서관(1961), 제네바의 WHO 본부 계획안(1959) 등은 건물의 형태 표현에서 죠폰의 생명력의 발현으로 보이는 강한 힘을 보여준다.



Fig. 2. Kagawa Prefectural Office, 1958



Fig. 3. Sogetsu Art Center, 1958

1960년대 이후, 단계의 작업은 죠폰의 남성적인 감성과 야오이의 약간은 귀족적이고 여성적인 감성 사이에서 정확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8].

생명력과 미학적 규범 사이의 이러한 균형이 이세신궁 처럼 완벽하게 균형 잡힌 형태를 가져온다고 생각한 단계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생명력과 미학이 여기처럼 잘 균형 잡힌 채 만들어진 건축은 좀처럼 없다 ... 이세의 형태와 공간은 시간을 초월해 기본적인 생명력과 미학의 영역을 결합한다[9].”

3. 단계 겐조의 전통론

3.1 전 세계를 향해 열린 전통

자신의 건축 속에서 단계는 국제적이며, 또한 일본적이다. 그에게 국제적 명성을 안겨주었던 이러한 특징은 전 세계를 향해 개방된 지역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일본적인 독특함과 일본적 취향은 단계의 작품을 통해 섬세하고 세련되고, 때로는 한 번에 알아챌 수 없을 정도

로 나타난다. 일본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찾아야만 하고, 그것을 연구해야만 한다. 마치 선종(禪宗)의 사상처럼, 쉽게 이해할 수 없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이러한 흔적은 일본의 역사적 전통이 갖는 독특함에 대해 감정적으로 순응하는 것이 아닌 전통에 대한 지적이면서도 정신적인 이해를 의미한다.

단계는 일본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포함해 동시대 건축가들 사이에서 자신의 특징을 보여주는 매우 일본적인 표현을 국제적으로 승화시켰는데[10], 단계의 방식은 서양에서 도입한 새로운 것과 일본 전통의 오래된 것의 독특한 합성을 통해 지역적 순수성에 기초한 특색을 만들었다. 따라서 단계에 의해 이렇게 다듬어진 형태는 어느 정도 과거를 연상시킴으로써 전통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완전히 새롭게 보였다. 일본의 오래된 전통에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오래된 것이며, 국제적인 미학 개념과 기술에 대해 끊임없이 혁신적이기 때문에 새로웠다. Boyd의 주장처럼, 단계가 만든 조형적인 형태는 놀랄 정도로 일본적이고, 기념비적으로 국제적이었다[11]. 단계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내세움으로써 이러한 모순을 뛰어 넘었다. 일본 전통문화의 심오한 이해와 결합된 근대정신의 진정한 본질적 추출은 그의 히로시마 평화공원과 카가와 현청사와 같은 많은 작품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3.2 단계 겐조의 ‘新전통’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로 일본의 근대건축을 정의하는 문제는 초민족주의적 사상에서 민주주의와 반전 사상으로의 극적인 전환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적 맥락 속에서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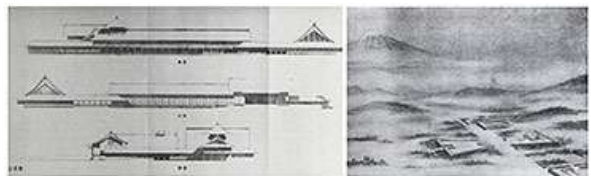


Fig. 4. Kunio Maekawa's Japan-Thailand Cultural Centre (left) and Tange's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Memorial Hall (right)

단계를 비롯한 많은 건축가들이 Fig. 4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전시(戰時)에 사용했던 전통적 관용구는 전후(前後)에는 현대적인 건축 언어와 도시 재건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으로 대체되었다.

전통의 문제 역시 전쟁 중에 활발했던 ‘일본취향의 추구에서 벗어나 전후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받았다. 우선 일본의 전통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면서 문화적 뿌리에 관한 관심이 커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정치적 환경 속에서 ‘사람을 위한 예술’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사회를 위해 투쟁하는 지식인 운동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건축 언어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12].

단계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히로시마 평화공원 Fig. 5, 도쿄 도청사, 카가와 현청사 등을 포함한 후속 작품들을 통해 일본건축에서 ‘新전통’의 재정의의를 요구하는 극적인 움직임 보였다[13].³⁾ 히로시마 평화공원, 도쿄 도청사, 카가와 현청사 등 그의 작품들은 이 분명한 두 가지 요구를 단순히 결합하는 실용적인 접근법을 뛰어 넘어 최첨단의 구조 기술과 변형된 전통건축 어휘의 표현을 극적으로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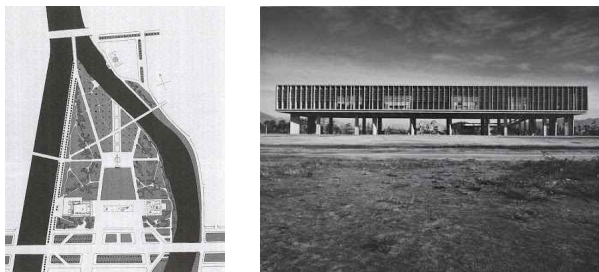


Fig. 5. Hiroshima Peace Center and Memorial Park, 1955

전후(前後) 1949년에 히로시마 도심의 재생을 목표로 한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위한 현상설계에서 당선된 단계는 1951년 영국의 Hoddesdon에서 ‘도시 핵심(Urban Core)’라는 주제로 진행된 CIAM에 일본 대표로 참석할 때 이 계획을 소개했다. 원폭에 의한 살상으로부터 히로시마를 재건하는 단계의 계획은 독특하고 전례 없는 방식으로써 이후로 일본의 국가적 정체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될 새로운 건축 언어를 성공적으로 고안했다고 평가받았다. 단계는 이 계획에서 도시공간 구성에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했고, 6.5미터 높이의 필로티 위에 놓인 원폭 기념관의 파사드에서는 넓은 수평성과 격자무늬로 일본의 전통적 건축 양식의 비율을 되살렸다. 반면에 콘크리트, 평지붕과 합리적인 프레임 구조를 사용하여 동시에 모든 면에서 현대적이었다. 이러한 전통과 모더니즘의 융합은 전후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도시가 새로운

3) 단계는 1960년 4월 27일부터 29일까지의 라디오 방송에서 Antonin Raymond와 인터뷰하면서 ‘新전통’의 개발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질서를 갖게 했고, 이후로는 거의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일본의 전후 모더니즘으로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전통과 기술적 창의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의 태도는 분명했다. 중세의 전통도시를 참고했던 전통주의자들과는 달리 단계는 도시의 새로운 질서가 최신 기술로만 성취될 수 있다고 믿었다: “질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14].” 1959년에 Otterlo에서 열린 CIAM에서 Ernesto Rogers가 그의 작업을 일본적 전통으로의 회귀로 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계는 “전통과 지역적 특성은 비판적인 눈과 마음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창조적인 작업은 우리 시대에는 기술과 인간성의 결합으로 표현된다 ... 전통은 분명히 창조의 한 부분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더는 창조적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15]. 따라서 그는 자신의 초기 작품과 지역주의적 사상을 연관 짓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거부했다.

자신이 주장한 ‘新전통’을 바탕으로 단계는 전통적인 어휘를 강조한 전쟁 전의 방식에서 보다 추상적인 미학이나 전쟁 이후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정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건축에서의 일본적인 특성의 변화를 시도했다.⁴⁾ 건축가가 특정 양식이 아닌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단계의 주장은 건축가들에게 계속 탐구해야 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Fig. 6. Katsura Imperial Villa Fig. 7. Ise Grand Shrine

일본의 국가 정체성을 드러내는 새로운 전통에 대한 단계의 주장은 카츠라궁 Fig. 6과 이세신궁 Fig. 7에 관한 단계의 두 이론적 연구에서도 시연되었다[16]. 특히, 카츠라에 대한 책에서 단계는 현대적 디자인을 위해 전통에서 영감을 얻으려는 변증법적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세신궁에 대해 보여준 새로운 찬사와 그것을 해석함에서의 미묘한 변화였다.

4) 단계가 1959년 CIAM의 Otterlo 회의에서 전통과 건축적 창조 사이의 관계에 관해 Ernesto Rogers와 논쟁을 벌였을 때. 그는 “건축가가 특정한 표현 양식이 아닌 정신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15].

1942년 대동아 공영권 기념관 설계에서 단계는 이세신공의 본당 건축 양식을 모방하고, 그것을 서구의 기념관 구성과 접목시켰다. 그러나 전후에는 제국주의에 대한 이세의 밀접한 연관성을 의도적으로 희석시켰다. 단계는 조몬과 야요이에 대한 자신의 분석들을 확장시켜 이세 이후의 모든 일본건축의 출발점으로 제시하면서 신도 건축과 자연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일본건축의 이후 전 과정은 이세에서 시작된다.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자연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 비율에 민감하며, 공간 배치에 대한 감각, 특히 건축과 자연의 조화라는 전통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9].”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단계의 관심은 구체적인 건축적 형태의 구현으로부터 이세신공에서 구체화된 ‘자연적 과정’으로 전환되었다.

3.3 단계 켄조의 ‘新전통’이 갖는 역동적 특성

3.3.1 전통에 대한 정적인 접근의 거부

단계의 주장은 아즈치·모모야마 시대(安土桃山時代)나 루이 14세의 화려한 양식과 같은 전통적 요소를 단순히 장식적으로만 사용하는 장식적 전통은 문제가 있고, 건물의 파사드를 꾸미기 위해 전통적 요소들을 사용하는 대중적인 경향은 비난받고, 거부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17].

단계는 일본의 고대 건축에 대해 정통했지만, 지역의 토착적인 건축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에는 저항했다. 모방의 형태로 만들어진 지역주의는 지역적 전통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 단계의 생각이었다.

단계는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의 전통을 서양의 근대건축에 빗대는 것에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Ch. S. Terry가 주장했던 것처럼, 일본전통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귀족관료나 사무라이의 정신을 표현한 것과 같은 일본 건축역사의 특별한 흐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18].

3.3.2 촉매 역할로서의 전통

단계에게 전통은 결과물에 최소한의 흔적만을 남기고, 창조적 활동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촉매제에 비교될 수 있다[19]. 예를 들면, 쿠라시키의 백색 회반죽과 아름다운 전통은 단계의 시청사 계획안에 영감을 주었지만, 그 흔적들이 건축물에 남는 것을 피하고자 모든 노력을 동원했다.

하지만 동경올림픽 이전의 초기 시기 동안 단계는 여전히 진정한 근대적 창조성을 찾는 것이 단계에 있었고,

만약 이 초기 계획안 중에서 명백한 전통적 표현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작가로서의 능력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Fig. 8과 9와 같이 쿠라시키 시청사가 쿠라시키 시의 특징 중의 하나인 나무로 된 오두막집 형태의 일본 전통의 오래된 창고를 연상시키지만, 단계가 이것을 미리 고려한 것은 아니었던 것처럼 말이다. 분명한 것은 단계는 자신의 작품이 전통적으로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따라서 전통에 대한 많은 관심은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전통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이다[20]. 이 당시 전통의 흔적들이 조금씩 녹아들어 있던 단계의 작품들은 이런 이유로 전통적이거나 보수적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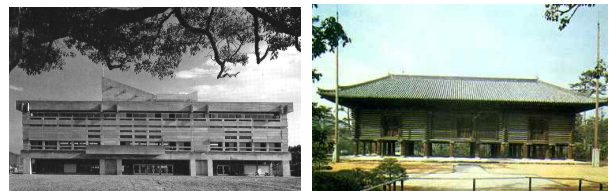


Fig. 8. Kurashiki City Hall, 1960
Fig. 9. Shosoin, Imperial Repository, 752.

단계는 자세하게 연구된 과거의 건축으로부터 영감을 얻지만, 현재에 적합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음으로써 전통의 정신을 지속시키고 싶어 했다. 전통의 지식이나 경험을 존중하고 과거의 건축을 존경했지만, 여러 다양한 시기들이 뒤섞이는 피상적인 적용에 빠져드는 것은 결코 하지 않았다.

3.3.3 전통의 파괴

단계의 ‘新전통’은 전통이 끊임없는 혁신에 의해서만 영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단계에 따르면, 고유한 형태의 표현이 지역적 전통의 창조적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형태의 단순한 반복, 일정한 지역 혹은 시기의 시각적 표현의 재사용이 창조를 위한 유일한 원천은 아니고, 전통은 그 자체로는 스스로 창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반복된 역사의 고유한 표현으로서의 전통은 독립적으로 생존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21].

지역의 반복적인 전통은 창조력 일부를 구성할 수는 있지만, 창조를 전적으로 불러일으킬 수는 없다. 있는 그대로의 전통은 자발적으로는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통은 본질적으로 반복과 형식주의를 촉진해 쇠퇴하고, 소멸하는 경향을 보

이기 때문이다. 각각의 사물이 자기 자신을 똑같이 반복하는 전통은 파괴와 죽음으로 귀결된다.

전통의 쇠퇴하는 형태가 그 정적이고, 고정된 상태로 향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힘은 쇠퇴하는 형태를 파괴하면서 거부해야만 한다. 단계에 따르면, 전통이 계속 생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에너지의 창조력, 다시 말해 전통 파괴의 힘으로 끊임없이 파괴될 필요가 있다[22]. 이렇게 전통이 파괴되거나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현대의 변화 속에서 급격하게 쇠퇴할 것이다.

4. 결론

일본에서 1950년대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전통에 관한 문제, 특히 전통의 개념은 기술의 가치가 중요해진 오늘날에는 좀 더 모호해지고, 불분명해졌다. 과거의 실제 형태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1950년대와는 달리 현대의 건축가들은 형이상학적 용어로 전통에 관한 관심을 표현한다.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용어로 정의된 전통은 이제 더는 서구의 진출을 막기 위한 지역적 가치로서가 아닌 보편화한 가치로서 정립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적인 역할을 단계 겐조가 했다.

건축의 현실적 창작 프로세스에서 전통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는 단계의 최대 관심사였고, 단계는 일본건축의 전통성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현대건축에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동시에 서양건축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새로운 구축적 방법들을 시도함으로써 일본 현대건축의 발전에 이바지했다. 단계는 특히, 일본의 전통건축과 서양의 모더니즘을 융합한 일본 현대건축의 독창적인 흐름을 이끌었지만, 일본 전통건축의 단순한 현대화에 머물지는 않았고, 일본의 건축적 전통과 현대문명을 폭넓게 아우르는 세계적인 건축을 만들고자 했다. 이런 단계의 건축은 동양의 현대건축을 서양건축의 모방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던 서양인들에게 동양 건축의 새로운 발견이었다.

하지만, 단계는 전통적인 형태 그대로를 보존하는 방식의 기존 전통론으로는 더 이상 일본의 전통성을 국제적인 것으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자신의 '新 전통'을 통해 전통을 끊임없는 혁신에 의해서만 지속되는 것, 창의적인 활동을 자극하는 촉매제로서 결과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주장했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작품이 전통적으로 보이지 않기를 원했다.

전통을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 파괴와 비파괴, 생명 속에서 곧 사라질 것과 진정한 창조를 생성하는 살아

있는 생명력의 변증법적인 합성으로 생각했던 단계는 자신이 주장한 전통의 진정한 가치인 정신에 의해 파괴적인 힘을 조절함으로써 의도적인 파괴를 통해 전통을 변화시켰다.

본 논문은 단계의 新전통에 대한 이론적 분석에 집중한 연구였기에 단계의 건축작품에서 직접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전통론의 영향 및 변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단계의 작업에서 과거와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재료, 어휘 및 관계를 통해 어떻게 전통이 행해지는지에 대한 분석을 후속 연구에서 진행할 것이다.

REFERENCES

- [1] R. Alleau & J. Pepin. (1989). Tradition. *Encyclopedia Universalis*, Paris, 826-829.
- [2] U. Kultermann. (1960). *New Architecture in Japan*, Tübingen, Ernst Wasmuth, 7.
- [3] R. Boyd. (1968). *New Directions in Japanese Architecture*, London, Studio Vista, passim
- [4] Z. Lin. (2006). *City as Process : Tange Kenzo and the Japanese Urban Utopias, 1959-70*, Ph. D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55,57.
- [5] K. Kim. S. Lee. & S. Ok. (2000). A Research on the Architectural Polemical in the Japanese Architecture after the Second World War(1). *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1), 22.
- [6] K. Tange. (1985). Recollections(2). *The Japan Architect*, 334, 6.
- [7] A. Osawa. (1979). The latest Kenzo Tange. *The Japan Architect*, 267/268, 7.
- [8] H. Hozoumi & J. Dodd. (1965). Kenzo Tange. *Architectural Design*, may, 238.
- [9] K. Tange, N. Kawazoe & Y. Watanabe. (1962). *Ise prototype of japanese architecture*, Cambridge, MIT Press, 14.
- [10] H. Sasaki. (1971). An architecture with possibilities. *The Japan Architect*, 171, 91.
- [11] R. Boyd. (1966). Kenzo Tange, an architect in the world. *A.I.A. Journal*, June, 82.
- [12] H. Yatsuka & H. Yoshimatsu. (1997). *Metabolism: Japanese Architectural Avant-garde of the 1960s*. Tokyo, Inax Publishing Co., 36.
- [13] A. Raymond. (1973). *An Autobiography*. Tokyo & Rutland, Charles E. Tuttle, 213, 249-250.
- [14] K. Tange. (1960). Aestheticism and Vitalism. *The Japan Architect*, Oct, 8-10.

- [15] O. Newman. (1961). *New Frontiers in Architecture: CIAM's 59 in Otterlo*. New York, Universal Books, 172.
- [16] J. Kwon. (2018). A Study on the Change of Design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in the Architecture of Kenzo Tang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6), 191-201.
- [17] K. Tange. (1961). Kenzo Tange, Tokyo/Japan, discussion, in O. Newman & J. Joedicke. (1961). *CIAM '59*, Stuttgart, Karl Krärner verlag, 176.
- [18] C. S. Terry. (1959). Kenzo Tange, no friend of tradition. *Japan Quarterly*, April/june, 205-206.
- [19] K. Tange. (1960). Architecture and urbanism: III - A building and a project. *The Japan Architect*, october, 19.
- [20] K. Tange & K. Shinohara. (1983). After modernism, A dialogue between Kenzo Tange and Kazuo Shinohara. *The Japan Architect*, 319/320, 11.
- [21] K. Tange. (1959). An approach to tradition. *The Japan Architect*, January/february, 55.
- [22] K. Tange. (1960). *Katsura : Tradition and creation in japanese architecture*. New Haven and Tokyo, 44.

권 제 중(Je-Joong Kwon)

[정회원]



- 2000년 8월 : 한양대학교 건축학과(공학석사)
- 2007년 11월 : 프랑스 국립 파리 라 빌레뜨 고등건축학교(프랑스 공인건축사)
- 2010년 1월 : 프랑스 국립 파리1대학 예술사학과(예술사학박사)
- 2011년 9월 ~ 현재 : 대구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건축계획 및 설계, 건축역사
- E-Mail : kwonjejoong@daegu.ac.kr